

2022 문화예술 일제 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1차 민간 공모 사업

-콘텐츠 개발 지원 분야 심의평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지원단체와 적정하고 합리적인 지원금액을 신청한 단체로 선별하였으며 수행 역량과 독창적인 콘텐츠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되고 파급효과를 거두는 지원사업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다양한 항일 유적지와 인물에 대하여 분석을 잘 하였고 이에 대한 표현 의도가 우수합니다. 기획서의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산출물(책자, 도서) 등은 다양한 시민들이 활용·향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회계는 원칙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자세와 역량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19라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4개라는 많은 단체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12개의 단체가 인터뷰 심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며, 선정된 단체는 공모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 콘텐츠의 작품성과 우수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와 본 공모사업을 신청할 후속 단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나친 예산을 편성한 단체가 많아 아쉬웠습니다.

해방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일제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일제의 잔재를 발굴하고 없애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 보다 창의적이고 21세기의 기술발전이 부합하는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문화예술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면 합니다.

심의위원장	박진희
심의위원	이상운
	이순임
	서연수
	박준환